



## l n d e x

### 2면

아시아 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및 국제세미나 개최  
'서해안 생태 환경 프로젝트 진행'  
한반도 대운하 포럼

### 3면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최종보고회  
환경계획·설계 최종발표회  
서울대학교 Eco Campus 선언  
서울대-강동구 지속가능발전 연구  
2차년도 과업 착수  
도시재생 R&D 프로젝트 2단계 착수

### 4면·5면 [인터뷰]

강길부 동창회장 인터뷰  
유한킴벌리 사장 김중곤 인터뷰

### 6면 [환경대학원 소식]

이정전 교수 특별 강연  
환경대학원 졸업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교수 동정  
기초교육원 관악모듬강좌 개설  
-지속가능발전  
-서울

### 7면 [도시환경·교위 정책과정 소식]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특강  
이승한 사장(교위과정 동창회장)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 수훈  
SGS 8월 해외 답사 보고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국내시찰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수료식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수료  
기념집 출간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출범식

### 8면 [교수 칼럼]

환경대학원장 졸업식 축사  
교수 칼럼

### 환경대학원 동창회 제18대 정기총회 결과 보고

회 장 :  
강길부(계회9회), 현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회의원

부회장 :  
이민우(조경13회, 디자인1기),  
(주)가원조경기술사사무소 대표

부회장 :  
오영태(교통14회), 아주대학교 교수,  
교통학회 부회장

부회장 :  
이승현(CEO3기), 삼성테크노 시장  
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와 갤러리 전시전

환경대학원 교육 40년(1968-2008년) 기념행사가 2008년 10월 10일(금)에 서울대학교 내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기념행사는 크게 세 파트로 나뉘어서 진행된다. 오전 10시에 기념식을 시작으로 오전 10시 40분부터 오후 5시까지 박물관에서 학술대회가 이루어진다. 학술대회 후에 장소를 환경대학원으로 옮겨 오후 5시 30분에 40년 기념 갤러리 전시작품 설명회를 가진 후에 곧 이어서 만찬을 겸한 동문초청의 밤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 40년 기념행사 학술대회 주제 '한국의 국토·도시·환경과 공공 계획: 역사적 성찰과 미래전망'

이번 40년 기념행사의 가장 핵심을 이루는 학술대회는 '한국의 국토·도시·환경과 공공계획: 역사적 성찰과 미래전망'이라는 주제로 1부와 2부에 걸쳐 진행된다.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되는 제 1부는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역사

적 성찰'이라는 주제로 국토계획, 도시계획, 교통계획, 환경관리, 조정, 도시설계 분야의 환경대학원 동문 연사를 초청하여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역할을 성찰하게 된다. 제 2부는 '우리나라 공공계획의 위기와 과제'라는 주제로 공공계획 전반에 관한 고찰, 공공계획 교육, 연구, 실무 등 각 분야별 주제 발표와 열띤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동문초청의 밤 행사에서는 바베큐 파티와 함께 환경대학원을 빛낸 자랑스러운 동문들에 대한 시상 및 축하공연도 마련된다.

### 선·후배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갤러리 전시전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를 더욱 빛나게 하는 갤러리 전시가 환경대학원 1층부터 4층에 걸쳐 약 50점의 작품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3층 전시실에서는 계획 및 설계 작품들을 디지털 동영상으로 재구성·전시함으로써 관람객의 눈길을 끌 것으로 기대된다. 갤러

리 전시전에는 환경대학원의 '환경계획·설계, 광역조경계획, 주거환경설계, 단지설계, 커뮤니티 계획과 설계, 조경과 멀티미디어' 수업 결과물 가운데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과 환경조경학과 졸업논문 작품 중 우수작으로 선정된 작품들이 전시되며, 건축, 조정, 도시설계 등의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명성을 날리고 있는 졸업생 동문들의 소중한 작품도 전시된다. 이같은 갤러리 전시전을 통해 선·후배 작품들이 만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건축가, 조경가, 도시계획가, 도시설계가들의 활동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4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행사는 지난 4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 맞이하게 될 40년을 새로운 중흥기가 되도록 결단하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 최첨단 시설로 한층 새로워진 103호 강의실



서울대학교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4월 착공에 들어갔던 환경대학원 103호 강의실 리노베이션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이를 통해 환경대학원은 1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최첨단 멀티미디어 시설이

구비된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강의실에 입장하지 못한 참석자를 위해 1층 Lounge Plaza에서도 방청이 가능하도록 시설을 마련하여 국내·외 대규모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밖에도 외부의 스탠드형 테크 공간을 새롭게 조성하여 야외수업이나, 행사의 성격에 따라 소규모 파티 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 공간환경도 갖추게 되었다.

# AIEES: Asian Institute for Energy, Environment and Sustainability

##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AIEES) 설립 추진 및 국제세미나 개최

서울대 이장무 총장이 역점을 두고 있는 다학제간 융합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연구를 실현시키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칭함)설립 준비가 범 서울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난해부터 환경대학원 TF팀이 연구원의 목적, 설립 필요성, 연구분야, 조직, 운용방안에 관한 사전 준비를 해왔다. 2008년 6월 18일에는 연구원 설립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교수들이 모여 연구원의 조직과 향후 운용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날 회의에서 연구원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앞으로 연구원 규정안 및 구체적인 조직체계에 대해 검토해 나가게 된다. 대부분의 단과대학이 연구원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구원 산하에는 학문분야를 융합할 수 있는 4-5개

의 연구소를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연구원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서울대학교의 연구원설치검토위원회 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의견수렴, 법학연구소 법률자문, 연구소위원회 심의를 비롯하여 학장회의 및 평의원회 심의를 거쳐 설립 안을 공포하는 절차가 남아 있다.

아시아지속가능발전위원회 구성, 연구원의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 기대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하고 서울대학교가 지속가능발전분야에서 세계 정상에 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발전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다. 발전위원회 위원들은 연구원 발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있는 외부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는데, 이승한 발전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중곤 유한킴벌리 사장, 남승우 풀무원 사장, 박원순 상임이사, 정구현 삼성경제연구소 소장, 최갑홍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 추진 국제세미나 개최

2008년 10월 13일~14일에 걸쳐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설립 추진을 축하하기 위한 국제세미나가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세미나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 및 개원을 앞두고 연구원이 나아가 될 방향과 역할에 대해 다른 나라들의 경험담을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다른 국가들에서 수행된 지속가능발전 연구사례와 함께 관련

연구원의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눔으로써 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세미나에는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lanning), 영국 캠브리지대학교, 미국 예일대학교, 일본 동경대학교, 중국 북경대학교의 지속가능발전관련 연구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교수들이 참여하여 주제발표를 하게 된다. 또한 시민 참여 주도적, 환경친화적인 도시재생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있는 보스톤시의 도시계획국장도 참석한다. 초청연사들의 주제 발표 후에는 국내 전문가와 서울대 교수들의 열띤 토론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서해안 생태 환경 프로젝트 진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와 지역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환경생태학 분야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학 분야의 연구를 포함한 통합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가 사회적 현안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더 나아가 사회적 책임 및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대학의 역할을 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 연구는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다. 첫째는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로 인한 해안생태계 피해 및 회복에 대한 연구로, 궁극적인 목적은 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한 환경생태학적 피해 및 그에 따른 사회·경제학적 영향의 연관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며, 연구결과를 통해 향후 이 지역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예측하고 환경 및 사회문제를 완화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3월에 시작

된 이 프로젝트는 2008년 12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며 자연과학대학 고철환 교수, 사회과학대학 이재열 교수,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 윤순진 교수가 참여하고 있다. 둘째는 기획과제로 진행되는 세 분야의 연구이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 건강영향평가 연구(의과대학 조수현, 홍윤철, 강대회, 박수경 교수,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 사회과학대학 박금주 교수), 서해안 자연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통합적 연구(농업생명과학대학 가종역, 노희명 교수, 공과대학 남경필, 박준범, 윤제용 교수, 자연과학대학 이은주 교수), 방재수준의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연구(행정대학원 박순애 교수,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가 진행되고 있다. 서해안 생태환경 프로젝트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이 설립되고 나면 아마도 첫번째 공식적인 연구과제가 되어 후속연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 한반도 대운하 FORUM

환경대학원에서는 국내적으로 많은 논쟁을 일으켰던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한 연속적인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한반도 대운하 계획에 대해 가능한 한 객관적인 입장에서 세부적인 계획 내용을 검토하고 평가하기 위해 주요분야별로 환경대학원 내·외 교수들을 초빙하여 진행되었다. 2008년 4월에서 6월까지 총 8회에 걸쳐 연속적으로 진행된 포럼에서는 수질, 생태, 수자원, 물류, 경제성, 관광문화재, 하천관리,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고 한반도 대

운하 계획 내용에 대해 해외사례들도 참고하면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포럼은 주제발표에 이어 다양한 견해를 가진 참석자들과의 열띤 토론으로 매번 3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한반도 대운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고 서로간의 의견을 나누는 좋은 계기가 마련되었다. 발표자료가 필요한 경우 환경대학원 이동수 교수(880-8522, leeds@snu.ac.kr)에게 연락하면 자료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한반도 대운하 FORUM 일정과 주제

- 4월 16일 수질/상수원(공과대학 윤제용 교수)
- 4월 23일 생태(환경대학원 이도원 교수)
- 4월 30일 수자원/수리/홍수(공과대학 서일원 교수)
- 5월 7일 물류/교통계획(환경대학원 김성수 교수)
- 5월 14일 경제성, 비용/편익분석(환경대학원 이영성 교수)
- 5월 21일 관광/문화재(환경대학원 전상인 교수)
- 6월 11일 하천관리(충남대 서동일 교수)
- 6월 18일 지역개발(환경대학원 이회연 교수)

# UniverCity, 대학과 지역사회의 연계·통합을 위한 전략계획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최종보고회

## 관악캠퍼스의 울타리를 넘어 지역사회 캠퍼스로

환경대학원은 관악구와의 '연구 및 교육 교류협약'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 관악구」를 만들어 가기 위해 그 동안 수행해온 '관악구 장기비전 전략계획 연구' 최종 보고회를 지난 7월 18일 관악구청에서 가졌다. 이 연구는 세계화·지방화에 따른 국내·외 도시간 무한 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관악구의 가장 경쟁력 있는 고유자원인 서울대학교의 교육·연구·산학협동·사회봉사 기능을 지역사회와 물리적·기능적으로 연계·통합하

### UniverCity 관악구 전략계획

UniverCity 구축이란 대학은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한편, 지역사회는 기존의 대학캠퍼스 내에 수용할 수 없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하는 것이다. 전략계획의 연구내용을 보면 서울대입구역 주변에 서울대 아울렛을 조성하고 주변지역의 여관촌을 정비하면서 대학문화공간으로 재창출하는 방안, 로스쿨 도입에 따른

는 특화전략을 통해 비교우위를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연구도시: UniverCity' 구축을 핵심전략과제로 도출하였다. 이는 대학과 지역사회 사이에 존재해 왔던 높은 울타리를 걷어내고 상호 협력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첫 번째 시도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신림동 고시촌의 기능 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서울대 재학 외국인 학생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면서 이들의 외국어 교육기능을 활용하는 다문화 Global Village를 조성하는 방안, 낙성대길의 영어마을, 과학전시관 등에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대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강남순환고속도로, 경전철 등 교통환승시스템과 연계하여 서울대 정문 앞에 대학과 지역사회를 융합하는 'UniverCity Common'을 조성하는 방안, 관악산의 생태환경 보호와 관리를 위해 서울대와 관악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Conservancy를 운영하는 방안, 서울대 학생들이 참여하는 창작활동을 통해 소공원 등을 새롭게 단장하는 방안, 지역사회와 서울대를 연계하는 새로운 친환경 순환대중교통수단의 도입 방안 등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제시되었다. 관악구와 환경대학원은 이러한 장기비전 전략계획을 토대로 향후 'UniverCity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기위해 서울대학교에서 수립하고있는 장기비전 계획과도 접목시켜 구체적인 실행방안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 환경계획·설계 최종 발표회 개최

환경대학원은 2005년 10월 관악구와 연구 및 교육 교류협약의 계기로 관악구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2008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환경계획·설계' 수업에서는 관악구를 대상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한 학기 동안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과목을 수강한 94명의 학생들이 15개 조로 나누어서 수행한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발표회는 2008년 6월 4일 관악구청에서 관련부서 간부들과 환경대학원 교수 및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최종발표회에서 최우수작 1점에 대해 관악구청장상이 수여되었고, 우수작 2점과 장려작 3점에 대해 대학원장상이 수여되었다. 최우수작 연구주제는 '서울대와 관악구 지역 커뮤니티 강화 방안/GSC 프로젝트'이다. 최종발표회 이후 1주일 동안 관악구청 내에서는 학생들이 제출한 전시작품을 대상으로 전시 품평회를 함으로써 민관 전문가들과 소통의 자리도 마련되었다. '환경계획·설계' 과목은 환경대학원 여러 전공 학생들이 협업을 통해 해당지역에 관한 연구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실무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며, 여러 분야 간의 통합적 시각을 갖게 하는데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서울대학교 Eco-Campus 선언

서울대학교 이장무 총장은 서울대를 에코캠퍼스로 조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개교기념일에 '서울대학교 Eco-Campus 선언'을 할 예정이다. 이는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에 서울대학교가 적극 동참하며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에코캠퍼스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학 서울대학교는 에코캠퍼스 선언을 통해 지속가능한 대학으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의제들을 실천과제로 제시하게 된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 서울대 구성원들의 에코 라이프 실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 쾌적하고 건강한 에코 캠퍼스 조성방안, 서울대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 운동 추진, 쓰레기나 매연 배출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기 위한 에미션 제로운동 전개 등이 있다. 또한 서울대학교 자체의 세부 방안 뿐만 아니라 관악산 보전모임의 결성 및 주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에코 라이프 운동 전개 등 지역사회와 함께 추진해나가기 할 과제들도 고려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이를 위해 현재 별도의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추후 연구진을 구성하여 실천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이 연구진에는 서울대 관련 분야 교수, 교직원, 학생 등의 참여 뿐만 아니라 서울시, 관악구 및 지역 시민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도록 구상하고 있다. 현재 환경대학원 관련분야 교수들이 서울대학교 Eco-Campus 추진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서울대-강동구 지속가능발전 연구 2차년도 과업 착수

강동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린웨이 마스터플랜 수립 환경대학원은 2008년 6월 27일에 '2008 강동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환경정책' 2차년도 연구를 착수했다. 이번 2차년도 과업의 핵심연구주제는 강동구의 생활권 그린웨이 마스터플랜수립과 그린웨이에 연계한 주거지 프로토타입 개발, 선사로 문화환경 조성 기본구상, 보행 중심의 강동구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방향 등이다. 환경대학원 김기호 교수, 김성수 교수, 조경진 교수가 부문별 연구 책임 교수로, 그 외 다른 교수들은 연구에 대한 자문 역할로 참여하게 된다. 이 과제는 10월에 자문회의와 연구결과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 2월에 연찬회를 통하여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 정부지원 도시재생 R&D 프로젝트 2단계 착수

우리나라 도시쇠퇴 실태조사 환경대학원은 2007년 12월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R&D 프로젝트의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6개월에 걸친 1단계 연구를 마치고 2008년 7월부터 2009년 6월까지 2단계 연구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젝트에서 환경대학원은 우리나라 도시쇠퇴의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 해외 도시재생정책을 조사함으로써 도시재생정책에 필요한 자료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한편 영국, 미국, 일본의 도시재생정책과 사례로부터 우리나라 도시재생에 적절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김광중 교수(연구책임), 이영성 교수, 이희연 교수, 전상인 교수, 최막중 교수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다.

## INTERVIEW 환경대학원 동창회장 강길부

# 환경대학원과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앞장설 것

### 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동창회 영역 확대



강길부 동창회장은 환경계획학과(9회)를 졸업하고, 현재 17, 18대 울산 울주 국회의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매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동창회장직을 맡아 주신 강길부 회장을 만나 향후 동창회 발전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으로 취임하신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국회 업무로도 바쁘시겠지만 우리 동창회에서 꼭 이루고 싶은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듣고 싶습니다.

A. 예. 벌써 3개월이나 지났습니다. 전체 동창회가 원활하게 꾸러지기 위해서는 각 지역별로 동문들끼리의 만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제임시 동안에 전국 각지에 퍼져있는 여러 동문들을 모아 각 지역별 소모임을 구성하여 전국에서 우리 환경대학원 동문들이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기반을 닦고자 합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전체 환경대학원 동창회의 활성화를 꾀하고 나아가서는 모교의 보다 나은

발전도 꿈꾸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모임의 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역별로 요청이 있을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예산 지원 및 회장단의 참여 등 동창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생각입니다.

Q. 모교에서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 설립과 다양한 학술교류 등 환경대학원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창회에서는 앞으로 모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 부분에 초점을 두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 주된 동창회 활동 영역이었던 후학 양성을 위한 장학금 조성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차원에서 설립되지만 모교에서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설립을 물심양면으로 돕고, 환경대학원 발전기금 조성 등으로 동창회 영역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발전기금 모금을 위해 동창회 임원단 및 명예회장단이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모교에서 주관하는 환경대학원 교육 40년 기념 학술대회 및 동문초청의 밤을 계기로 우리 후배들과 동문이 함께 모교의 크고 작은 활동에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Q. 동창회장으로서 동문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간략하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A. 한마디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창회는 저와 몇몇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잘 운영될 수 없습니다. 많은 동문 여러분, 특히 최근 졸업하신 신세

대 동문들께서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셨으면 합니다. 젊은 동문들 중 일부는 동창회를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아는데 동창회를 통해 동문들 간의 친목을 도모한다는 점 이외에도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높은 명성을 쌓고 계시는 많은 선배님들께 직·간접적으로 배우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인 젊은 동문들께서 우리 동창회에 적극적으로 많이 참여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 향후 동창회 이사진과 임원회 구성에서 신세대 동문들을 많이 뽑아 '젊은 동창회'로 거듭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 각 분야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여러 선·후배님들도 그 동안 해주셨던 것처럼 항상 우리 동창회에 지속적인 참여와 함께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동창회가 잘 될 수 있도록 따끔한 충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Q. 회장단 모임이나 조찬 모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모교에서 민간 영역뿐 아니라 공공영역에서 리더십이 많이 배출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한 회장님의 생각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A. 현재 우리나라 공직 채용제도는 각 직렬이 있기는 하지만 그 전문성과는 별개로 대학 혹은 대학원의 전공과는 상관없이 일괄 시험으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도시계획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마인드와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채용하여야만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도 도시계획 분야는 도시공학은 물론 토목, 건축, 교통, 조경 등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앞으로 타 부처도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점차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신규 행정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행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국가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분야만 예를 들었지만 이는 비단 정부 각 부처의 모든 분야에 해당됩니다. 사회복지에는 사회복지 전문가가 도시 디자인은 디자인 전공자가 해당 업무를 맡아야만 가슴속에서 나오는 정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환경대학원은 '도시 및 지역 계획, 교통관리, 환경관리, 조경, 도시설계' 5개의 세부 전공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해당분야에 최고 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모교의 우수한 동문들이 공직에 진출하여 마음껏 그 전문성을 발휘하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INTERVIEW 유한킴벌리 사장 김중곤

# “인간의 행복을 푸르게 가꾸는 아름다운 실천”

유한킴벌리 CEO 김중곤 사장은 환경 대학원 CEO 환경경영포럼(현재 지속가능경영 포럼) 5기 Fellow이며, 문국현 전 대표이사 사장을 이어 지속가능경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김중곤 사장을 만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로 대표되는 사회 공헌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최고 경영자로서의 철학을 들어보았다. [편집자 주]

Q. 유한킴벌리의 CEO로서 가지고 계시는 경영 철학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기업 발전의 원동력은 사람이며, 모든 것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경쟁력의 근간이 되는 노사화합이나 생산성, 그리고 고객의 신뢰도 모두 사람에 대한 진지한 고찰과 노력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업문화의 바탕에서 사원들이 자발적인 창의력을 발휘할 때 기업은 지속가능할 것이며, 유한킴벌리가 추구하는 아시아를 선도하는 위생, 건강용품 기업이자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 가능할 것입니다.

Q. 유한킴벌리 하면 제일 먼저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라는 캠페인이 생각납니다. 사실 그 외에도 우리 사회와 지구를 위해 하고 있는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몇 가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나무심기와 숲 가꾸기로 시작되었던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은 이후 학교 숲 만들기, 중국과 몽골 등 동북아시아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노력, 그리고 청소년 교육과 연구지원 등 폭 넓은 숲 보호 활동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1998년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실직자들이 함께 숲을 가꾸며 새로운 희망

을 찾아낸 '생명의 숲 국민운동'은 시민사회와 함께 이루어 낸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후 많은 숲 보호 시민사회 단체, 전문가들과 협력하면서 숲과 환경을 위한 활동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문학 지원활동과 회사가 가진 좋은 사례를 사회와 나누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경영시스템과 사회적으로 '4조 2교대제'로 널리 알려진 평생학습, 가족친화 경영 같은 회사의 지속가능경영 실천 사례를 사회에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입니다.

Q. 특히 유한킴벌리는 국민들에게 환경부문에 사회적 공여가 가장 뛰어난 기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질업 2008년 설문조사 참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유한킴벌리만의 노하우나 경영 철학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A. 유한킴벌리가 사회적으로 환경친화기업으로 알려진 데에는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캠페인이 큰 기여를 했지만, 내부적인 지속가능경영 노력과 실천이 없었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경친화기업으로 평가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환경기준보다 엄격한 내부 환경기준을 정하고, 제품의 전과정에 대한 환경평가를 도입한 것도 이러한 노력입니다. 친환경 제품설계, 원료 및 에너지 절감, 물의 재사용과 같은 활동들도 지속가능경영 실천의 일환이었지요. 윤리경영이나 환경경영과 같은 사회책임의 기반은 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주춧돌이며, 또 장기적인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선진기업들이 사회책임과 지속가능경영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도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Q. 2008년도 지속가능성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A. 유한킴벌리의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국내의 지속가능성보고 가이드라인과 국제 표준에 최대한 맞추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거의 모든 지표를 성실하게 보고하고 있고 특히, 내부와 외부 이해관계자조사를 통해 중대한 이슈를 도출하는 중대성 평가 수행결과에 따라 도출된 항목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한킴벌리 보고서는 성과뿐 아니라 그 원인과 과정(투자)까지 포함해 매커니즘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자 노력했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한 부문에 있어서도 그 원인과 앞으로의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딱딱해지기 쉬운 표나 그래프를 최대한 손으로 그린 그림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등 독자의 재미와 읽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최근 최첨단 기술을 상용화해서서 또 한 번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간략한 설명과 이를 통한 기업의 각오도 들려주셨으면 합니다.

A.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보면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와 노력이 환경친화적 노력이기도 합니다. 보다 에너지를 덜 사용하고, 원료와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환경적인 부하를 낮추기 위한 기술들 중에는 첨단을 요하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유한킴벌리가 고객에게 드리는 위생과 건강을 위한 제품들의 모든 공정에는 늘 새로운 공법과 첨단의 기술이 적



용되고 있고, 그 속에는 환경을 생각하는 노력도 함께 숨어있습니다. 첨단기술이 기업의 경쟁력을 키울 뿐 아니라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키우는 일이라 생각하고, 항상 이러한 노력에 많은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Q. 마지막으로 지속가능경영포럼 CEO 과정을 수료하신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A. 지속가능경영포럼은 기업의 CEO들이 환경, 경영, 사회 전반의 변화를 이해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경영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환경과 사회에 대한 관심도 있는 주제를 다루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지만, 사회 각계의 리더들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대안에 대해 고민했던 것도 무척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환경과 경영에 대한 현안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해 발제하고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기업의 최고 경영자로서 뿐만이 아니라 사회리더로서의 역할도 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서울대 지속가능경영포럼 CEO 과정에서 제공하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운영시스템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의 리더에게 모두 도움이 되었지만, 특히 지속가능경영의 새로운 비전과 추진 전략을 함께 나누고 싶은 CEO들께는 꼭 참여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토지 및 환경경제학의 대가 이정전 교수 특별강연



한국의 토지 및 환경경제학계를 대표하는 이정전 교수가 지난 8월 말 명예로운 정년퇴임을 맞았다. 이정전 교수는 1980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부임해 27년동안 후학 양성에 힘써왔으며, 토지 및 환경경제학, 공공경제학, 공공투자이론 분야에 큰 기여를 했다. 특히 부동산 문제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학문적 초석을 다지는

등 많은 성과를 남겼다. 이교수는 서울대 상대를 졸업하고 미국 Iowa State University에서 경제학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한 학내 활동 외에도 우리나라의 환경정책과 시민운동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다. 이교수는 이와 같은 공로로 2007년 6월 정부로부터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여 받았다. 또한 저술활동도 활발하여 「두 경제학 이야기」, 「환경경제학」, 「토지경제학」, 「우리는 행복인가」 등 14권의 저서와 수십 편의 논문을 남겼다. 정년을 맞이 하면서 「우리사회의 갈등과 대립 그리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이라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였다. 이 강연에서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상황 속에서 시장원리에만 의존한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행복을 기준으로

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연후 이교수의 특별 강연을 청강하기 위해 모인 교수, 제자 및 참석자들과 조촐하게 준비한 다과와 함께 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정년을 맞이하면서 이교수는 서울대학교 발전기금으로 500만원을 출연하였다

### 이정전 교수 프로필

〈학력〉	
1971년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경제학과 졸업 (학사)
1975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제학 석사)
1980년	미국 아이오와 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1980. - 2008.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1989. - 1990.	한국자원경제학회 회장
1996. - 1998.	복식소비자연대 공동대표
1998. - 현재	환경정의 공동대표
2000. - 2001.	다동형직속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수자원관리분과 위원장
2004. - 2006.	한국 공공선택학회 회장
2008. - 2008.	대통령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자문위원
2008. - 2008.	환경부 민관협력위원회 위원회 공동위원장

## 2007 학년도 환경대학원 후기 졸업식

2007학년도 후기 졸업식이 지난 8월 27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열렸다. 이번 졸업식을 통해 석사 44명, 박사 7명에게 학위기가 수여되었다. 이에 따라 올해로 환경대학원 교육 4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석

사 2,205명, 박사 193명, 총 2,398명을 배출하게 되었다. 김기호 환경대학원 원장은 졸업식사에서 "협력을 통한 혁신, 전문가로서의 능력 향상, 사회적 책임, 전문가적 정직성"을 강조했다. 이어 졸업생들을 축하하

기 위해 참석한 강길부 환경대학원 동창회장은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사회를 변화시키는 충분한 잠재력을 발휘하여 사회에 기여하며, 노력과 성찰을 게을리하지 않는 동문이 될 것"을 당부했다.



### 졸업생 명단

- 석사**
- 환경계획학과  
강영모 권순형 김지영 김진욱 김현정 김혜진 김홍석 박재석 서범석 설 경 손원익 신혜린 심장섭 임정은 유은호 윤대관 이아람 정현나 조경미 주성운 주혜윤 황인창
- 환경조경학과  
강주형 고미정 고진영 김경찬 김민실 김서리 김우주 김혜열 남형주 노윤경 문승은 박진형 손원진 문서연 윤현덕 이진욱 이혜인 임영석 차미희 최 진 표민경 홍경석
- 박사**
- 환경계획학과  
김성욱 김수진 김준형 김태현 박은호 이용주
- 환경조경학과  
정제진

###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2008학년도 후기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지난 8월 20일 환경대학원 103호에서 열렸다. 오리엔테이션은 신입생의 수감지도 및 학교생활 전반을 돕고자 매학기 마련하고 있는 행사로 2008년 후기 석·박사 신입생 40여명이 참석했다. "최선"을 강조한 최막중 부원장의 인사로 시작된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환경대학원 교육

40년을 맞는 대학원 연혁 소개 및 동창회 소식 등을 전하는 1부 순서와 환경계획학과, 환경조경학과 안내, 수감지도, 원내 시설 소개 등의 2부 순서가 있었다. 특히 이번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환경조경학과 신입생들은 'Landscape & Me' 라는 주제로 UCC를 만들어 보는 시간을 통해 학과에 입학하게 된 동기와 평소자신에게 비취진 경관을 생각해 볼 수있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교수 동정

**양병이 교수**는 8월1일에서 6일까지 [CEO지속가능경영포럼] 해외시찰단을 이끌고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와 두바이를 방문하였다. 또한 숲 운동 관련 12개 단체가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활동을 위해 7월에 발족한 [기후변화 그린네트워크]의 공동대표로 선출되었다.

**조경진 교수**는 2008년 6월 30일부터 7월 3일까지 네덜란드 아펠도른 (Apeldoorn)에서 열린 45th IFLA World Congress, Transforming with Water에서 Toward a Spectacle City: Critical Synopsis of Han River Renaissance Project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 기초교육원 관악모듬강좌 개설

2008년도 2학기부터 기초교육원에서 학부 교양과정으로 제공하는 옴니버스 형식의 관악모듬강좌 시리즈에 본 대학원에서 주관하는 2개 강좌 '지속가능발전'과 '서울'이 개설되었다.

### 지속가능발전

양병이 교수와 윤순진 교수가 담당하게 되는 '지속가능발전' 강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등장배경과 개념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현실의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현해 나갈지에 대해 탐색하는 것을 수업목표로 하고있다. 아울러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다양한 과제들을 풍부한 사례를 접하게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를 실현해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데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은 학제간 연구와 다영역간 이해와 협력을 기초로 하는 만큼 이 과목에서는 다양한 학문영역의 교수는 물론 기업 경영인들과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초청강의를 통해 진행된다.

### 서울

전성인 교수와 김광중 교수가 담당하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대한 강좌는 서울의 역사와 문화, 경제와 산업, 주택과 건축, 경관과 디자인, 강남과 빈민문제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게 된다. 환경대학원 소속 교수들의 참여가 주축을 이루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이태진 국사학과 교수, 영화평론가 변성찬, 건축가 황두진 등의 초청강의도 이루어진다. 또한 북촌 한옥마을이나 서울시 방재센터, 뉴타운 지구로 주말을 이용해 답사까지 포함하는 매우 다채로운 수업 내용으로 짜여있다. 이 강좌는 서울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서울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오세훈 서울시장 초청특강 “서울을 디자인하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20일 도시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시스템 디자인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서울시를 어떻게 디자인해 가고 있는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초청특강을 통해 강연했다. 이 자리는 환경대학원 원장을 비롯한 많은 원내 교수들과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 과정생 및 동창회 회원 15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오 시장은 “디자인이란 도시의 모습을 그저 예쁘게 꾸미는 일이 아니다”고 역설하며,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 도시에 개성을 부여하고 질서를 갖게 하는 일이 바로 디자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도시디자인을 소프트웨어 디자인과 하드웨어 디자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는데, 소프트웨어 디자인에 해당하는 문화시정을 통해 어떻게 서울의 경제를 살리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여 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하드웨어 디자인 부분에서는 ‘스페이스 마케팅’을 강

조하였다. 즉 한강르네상스, 남산르네상스, 거리르네상스, 광화문광장, 디자인파크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도시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내는 데에 역점을 두고 그 배경과 계획을 설명하고 21세기 경쟁력 있는 도시가 나아가갈 방향을 제시했다. ‘서비스 디자인’ 부분에서는 서울시가 대 시민 서비스를 어떻게 디자인 해 왔는지, ‘시스템 디자인’ 부분에서는 ‘창의 시정’을 통해 공공조직의 시스템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 했는지에 대해 설명했다.

## 이승한 사장(고위과정 동창회장) 영국 여왕으로부터 훈장 수훈



고위과정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홈플러스 이승한 사장이 지난 5일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터 ‘대영제국 커맨더 훈장(CBE)’을 받았다. 이승한 사장은 한-영 양국의 경제 우호협력증진, 문화교육·나눔·환경 등 사회공헌에 기여, 삼성테스코 홈플러스를 가장 존경 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켜 한국과 영국의 국가이미지를 높인 공로를 인정 받아 영국 기사단 훈장을 수훈을 받게 된 것이다. 이 사장은 “여왕으로부터 영예로

운 훈장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큰 영예”라며, “훈장의 의미를 다시 시작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앞으로 한국과 영국이 상호 협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CBE(Commander of the Order of British Empire)는 영국의 이익에 공헌하거나 경제, 문화, 스포츠 분야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국 기사단 훈장.

## SGS 8월 해외 답사 보고

도시·환경고위정책과정(SGS) 동창회에서는 ‘기독교와 이슬람 문명의 교차로 역사문화도시 비교’라는 테마로 2008년 8월 7일~17일까지 10일간 이영인 주임교수 외 12인이 스페인, 모로코로 해외 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SGS 동창회가 주관하고 환경대학원에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과정수료 후에도 Fellow들에게 자발적인 학습 및 탐구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하고 선 후배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국내시찰 <홈플러스 목천 물류센터 방문>

지난 5월 17일 환경대학원 CEO지속가능경영포럼 8기 과정생 및 졸업생 30여명이 홈플러스 목천물류센터와 잠실점을 방문했다. 이번 견학은 지속가능경영의 대표적인 기업인 홈플러스의 사례를 직접 탐방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홈플러스는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존경받는 기업이 되고자 문화교육경영, 나눔경영, 환경경영 3대 사회공헌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목천물류센터와 잠실점 방문을 마친 8기생들은 “친환경 물류센터를 직접 방문해보니 우리 주변 곳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환경경영 아이디어가 무척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도 중요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CEO지속가능경영포럼은 수강생들

이 지속가능경영의 현장을 찾아 이론과 접목해 활용할 수 있도록 국내시찰과 국외시찰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수료기념집 출간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제7기는 그동안의 발제 및 토론, 국내외시찰 등의 내용을 담은 수료기념집 출간을 맞아 2008년 7월 4일~5일 1박 2일간 지리산에서 출간기념 산신제와 친목산행을 가졌다.



## CEO 지속가능경영포럼 수료식

환경대학원 제8기 CEO지속가능경영포럼 수료식이 10월 7일 오후 6시 30분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룸에서 열린다. 이 프로그램은 2008년 4월 15일 민간, 정부, 학계 등 각 부문 최고경영자와 리더들과 함께 출범하였다. 8기부터는 환경 중심의 커리큘럼을 한층 업그레이드해 ‘지속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에 맞게 경제·경영, 사회·문화, 인문·교양, 환경·도시 등의 주제로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였다. 또한 올 해 부터는 양병이 교수와 삼성테스코 이승한 사장이 공동주임교수를 맡고 있다. 9월 30일 이만의 환경부장관의 ‘신정부의 환경 정책방향’ 공개강의를 끝으로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게 된다.

※수료식 참석문의 및 구체적인 일정은 고위정책과정실 조교 김승현, 간사 하혜영으로 문의하면 된다. (02-880-8525)

##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 출범식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위해 정부·기업·대학·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여 대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커뮤니티인 도시·환경 최고전문가 과정이 10월 16일 제 8기 출범식을 갖는다. 본 과정은 도시·환경문제에 대해 다영역간 협력을 바탕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올 해에도 도시계획·설계, 건축, 조경, 도시개발·건설, 환경, 생태 등 각 분야의 전문가 30여명이 내년 3월까지 6개월에 걸쳐 세미나 형식의 강의/토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국내·외 시찰 등의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도시·환경 최고전문가과정은 21세기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고, 도시의 경쟁력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갈 최고전문가가 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 GSES 2007학년도 후기 졸업식사



### “ 새로운 시대적사명과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역할 ”

올해는 우리 환경대학원이 교육을 시작한 지 40년이 되는 뜻 깊은 해입니다. 오늘 졸업하는 졸업생을 포함하면, 지금까지 졸업생은 총 3,071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졸업생들은 도시·환경 분야를 포함하는 사회 각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는 10월에는 도시·환경분야의 지난 40년을 되돌아보고, 동시에 앞으로 40년을 내다보면서, 우리 대학원이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고 또한 우리 대학원이 가져야 할 새로운 비전을 모색

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는 이번 10월에 기후변화·에너지문제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기 위해서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AIEES)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학원이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에서는 우리사회를 포함하는 아시아와 지구 전체의 '지속가능한 사회실현'이라는 큰 비전을 실천하기 위하여 범 서울대학교 차원의 다학제간 연구와, 기업, 정부, 시민사회, 대학들 간의 다영역간 통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13~14일에는 아시아지속가능발전연구원의

설립추진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세계의 주요 지속가능연구센터의 연구원을 초청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은 오늘을 시작으로 해서 인생의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사회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협력을 통한 혁신(Collaborative Innovation)을 위해서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영역간, 다학제간에 통합적 접근이 만들어내는 창조적 힘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고 지구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여러분을 세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당부합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세계와 교류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스스로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우리 분야의 중요성과 우리들에 대한 사회의 존경심도 함께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전문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교통, 환경관리, 조정 등을 공부한 도시환경 분야의 전문가로서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일을 추진하여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회적 책임감을 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적 정직성 (Professional Integrity)”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거대한 국토환경의 변화를 맞이하면서 사회로 진출하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발휘할 전문가적 정직성은 우리의 후속세대에게 남겨줄 우리 국토와 도시의 모습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졸업생 여러분, 다시 한번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하나님의 가호와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8월 27일  
환경대학원 원장 김기호

## GSES 칼럼

### 기후변화시대의 도시와 도시계획



윤순진 교수

기후변화의 시대, 도시가 또 다른 각도에서 주목받고 있다. 도시는 주요 에너지 소비처이자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처이기 때문이다. 인구 천만 명 이상의 세계 주요 20개 도시에서 세계 에너지의 75%가 소비되며 도시화율이 90%를 넘는 한국에서도 대부분의 에너지가 도시에서 소비된다. 7대 광역시만 놓고 보면 국토 면적의 5.4%에 불과한 지역에 46.8%의 인구가 살면서 30.3%의 1차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다. 도시가 변화되지 않으면, 그래서 에너지소비 규모와 행태가 변하지 않으면, 기후변화는 더욱 거세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도시는 기후변화에 취약하다. 많은 도시들이 해안가에 입지하고 있는데

해안도시는 해수면 상승이나 잦은 기상이변에 취약하다. 해안도시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다양한 기반시설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인공적인 기반 시설에 기대어 도시가 유지되고 있기에 도시는 기후변화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될 수밖에 없다. 도시의 위생과 생존이 도시 외곽지역에서 공급되는 상수에 연동되어 있기에 기후변화에 따라 물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도시의 열섬효과와 지구온난화로 인한 전반적인 기온상승현상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면 또 어떻게 될까? 열파피해는 물론 전염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높은 인구밀도로 전염병이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의 환경변화 추세를 예측하고 그에 맞게 거주환경과 대응체제를 만들어가는 적응(adaptation) 노력 또한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도시들에서는 에너지소비와 기후변화 적응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서울의 경우를 예로 들어 살펴보면, 서울에서는 온실가스가 건물부문에서 43.2%, 수송부문에서 40.3%, 폐기물부문에서 12.5%가 배출된다. 그러므로 도시계획을 통해 주

택가와 상가, 공공장소의 위치나 교통로를 합리적으로 지정하고 녹지를 확보하며 대중교통과 자전거도로 등이 구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건물의 단열규정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지붕과 벽면을 활용하는 태양광과 태양열 설비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폐기물 처리장이나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와 운영도 에너지 관점에서 자원순환적인 방식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재개발이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미관과 용적률만이 아니라 에너지를 필수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의 에너지 부하를 낮추어야 한다. 아울러 개별 도시의 기후조건이나 산업구조, 시설물의 입지와 분포를 고려해서 기후변화가 가져올 영향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폭우에 대비해 침수와 역류를 막을 수 있도록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저류지를 확보하며 빗물이나 중수이용을 확대하도록 건축규정을 강화하여 도시 자체의 용수공급능력을 높여야 한다.

이제 우리 도시들도 기후변화 대응의 필요성을 서서히 인식해가고 있으며 도시계획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조

금씩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해 과천, 창원 등 7개 시·도가 환경부와 기후변화대응 시범도시 협약을 체결하여 지역별 여건과 사정에 맞게 특화된 기후변화대응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자원절약형 개발, 신재생에너지 활용, 충분한 녹지 공간 확보 등을 권장,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공간계획 수립을 유도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체로 기후보호시범도시들에서조차 기후변화대응과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이제 겨우 중요성을 인식해가는 상태이다. 도시들에서는 우선 작거나 온실가스 배출제로·기후변화 적응대비 주거단지를 시범적으로 만들어 가시적으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제 도시는 편리성과 쾌적성을 넘어 기후변화 대응 가능성을 고려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높여나가야 한다. 에너지를 중심에 두면서 기후변화적응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절실한 시점이다.